

내 집과 같은 노인 시설주거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I)

- 미국의 노인 서비스주거 시설을 중심으로 -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Homelike Elderly Housing Facilities

건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신 영 숙

Dept. of Home Management, Konkuk Univ.
Prof: Shin, Youngsook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과 및 논의 |
| II. 선행 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Korean population pattern has become so called aged society by this July through the aged composed over 7% in whole population. It is worldly concern how can increase elderly people's life satisfaction by providing homelike elderly housing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home, how to express the homelike characteristics into physical design and identify their housing satisfaction. The results were discussed and design ideas were suggested.

I. 문제의 제기

많은 연구들에서 건물의 건축적, 물리적인 형태는 그 안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정신, 신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Brennan, 1988; Lawton, 1977; Moos & Lemke, 1985). 예를 들어 노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물디자인은 노인들의 활동 수준, 사회적인 접촉, 건강, 일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준다.(Moos & Lemke, 1980). 그러나 노인의 활동 능력이 감소하거나 더 소극적 성향을 가진 경우에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의 의존도는 더 높아진다(Lawton 1970). 사람들은 그들의 요구와 일치하는 환경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곳은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주거 환경에서 가정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없을

타일에 영향을 준다.(Moos & Lemke, 1980). 그러나 노인의 활동 능력이 감소하거나 더 소극적 성향을 가진 경우에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의 의존도는 더 높아진다(Lawton 1970). 사람들은 그들의 요구와 일치하는 환경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곳은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주거 환경에서 가정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없을

때 특히 노인과 같이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게 되는 경우 스트레스와 불편한 느낌을 계속 갖게 된다(Stern, 1977). 반면 최상의 신체적, 심리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환경이 지원해 줄 때 또한 다양한 선택의 기회와 의사 결정의 기회가 있을 때 오래도록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인생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Weaver, 1988). 따라서 앞으로 노인 주거시설은 더욱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종전의 수용을 위한 제도적 시설로서의 인상을 제거하고 좀더 노인의 생활 욕구를 파악하고 노년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을 위한 물리적인 환경은 최상의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하도록 필요한 지원과 독립성을 조장시키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특히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창조하여 노년기생활의 질을 높이고 노인들이 더 적응하기 쉽게 계획되어야 한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는 2000년 7월 현재 7.1%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고 2022년에는 14%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명실상부한 고령화 사회가 전망된다(통계청, "세계 및 한국의 인구 현황, 2000, 7. 1 발표).

따라서 본 논문은 내 집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의 노인 시설주거의 디자인은 어떠한 특성을 가져야 하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노인 부양의 선진국인 미국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편안함으로 노후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의 행태에 맞는 주거시설을 위한 디자인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들을 위한 시설 디자인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미국의 노인 주거시설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 1) 가정의 개념은 어떠한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파악한다.
- 2)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어떻게 물리적인 디자인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 3) 미국의 서비스주거 거주노인의 현 시설에 대해 느끼는 가정과 같은 편안함의 정도를 규명하고 가정과 같은 디자인특성을 제안한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먼저 가정에 대한 개념의 이론적 배경을 규명하고 물리적 디자인을 통해 어떻게 이러한 특성을 표현할 수 있을지 파악하고 미국의 노인시설주거 디자인에 나타난 가정과 같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고찰

1. 가정의 개념

가정이란 단지 생활을 위한 장소 일뿐 아니라 가정의 개념은 개인의 열망, 관심, 동기, 또한 개인의 안녕과 라이프 스타일 형태와 함께 가치 등 넓고 다양한 의미의 만족을 포용하는 곳이다.

가정에서 가장 흔히 대두되는 용어는 아이들을 기르는 곳/ 가족이 살기 위한 장소/ 머무는 곳/ 내 생애를 보내는 곳/ 쉬는 곳/휴식처/ 편안함을 주는 곳/ 사랑이 있는 곳/따뜻함/ 이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장소/ 내 소유/나의 장소; 프라이버시의 장소/ 혼자 있을 곳/후퇴하여 있는 곳/ 언제나 돌아오는 장소/ 보완성/ 독립적일 수 있는 장소/내가 좋은 대로 할 수 있는 곳 등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의미를 정의하기에는 대단히 개인적이고 쉽게 연구되지 않는 미묘한 사항이다. Hayward(1977)는 가정의 의미를 5가지로 분류하여 첫째로 하나의 장소, 물리적인 환경, 기숙장소, 주거 또는 일차적인 거주장소로서의 물리적 구조로서의 가정 (Home as Physical Structure), 둘째로 가정을 집약된 영역의 연속으로 보는 영역으로서의 가정(Home as Continuity), 셋째로 가족 수나 생활형태에 따라 가정 내 공간의 크기, 연결 관계 등이 달라지며 이로 인해 접근성, 동선의 변화 등이 나타나는 공간내 궤적으로서의 가정 (Home as Locus in Space)과 넷째로 가정(가정 환경)은 개인과 개인 자아의 에센스로 인식되거나 가정이 자아의 연장으로, 가정(가정환경)이 자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표현되는 자아동질성으로서의 가정 (Home as Self and Self-identity), 다섯째로 특정한 지리적인 위치를 갖는 삶을 엮어가는 장소

로서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센터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단위로서의 가정 (Home as Social and Cultural Unit)으로 나누었다.

Tognoli(1987)는 가정의 개념에 대한 임상적 연구가 여전히 부족함을 지적하고 우선적으로 주택과 가정사이의 차이점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가정의 속성이 활동의 기지로서 인식되는 중심성(Centrality), 과거로부터의 계속성 및 소속감을 통한 연속성(Continuity), 프라이버시(Privacy), 자아 표현(Self-Expression)과 개인의 동질성(Personal Identity), 및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s)의 5가지 일반적 속성으로 구성되며 이로서 주택과 가정사이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Kahana(1982)는 개인의 욕구나 선호의 개인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조화이론(Congruence Theory)에서 개인의 욕구가 환경특성과 조화를 이루면 적응이 긍정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의 개인적 욕구의 리스트에는 프라이버시, 과거와의 연속성, 개성의 표현, 질서와 조직, 사회화 등이다. 더 최근의 연구(Regnier, 1994; Wheeler, 1993)들이 Kahana의 욕구 리스트를 더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욕구들은 과거와의 연속성, 개성의 표현, 프라이버시 등의 "가정과 같은" 개념에 관련되어 있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가정은 특히 가족과 함께, 대인관계의 범위를 촉진시키고 지원해주는 장소로서 인식된다.(Hayward, 1977; Sixsmith, 1986; Tognoli, 1987; Werner, 1987).

가정환경의 부가적인 측면들에 대한 연구로 Seamon(1979)은 친숙함과 자신에 대한 지원의 분위기와 관련이 되는 따뜻함으로, '따뜻함'이 가정의 주요특성이라고 설명하였다. Seamon은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가정이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 관심 있게 관리하여 주택 안에 가족들이 살면서 손때가 묻은 것이 감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뜻함은 사회적 요소와 함께 개인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Weiner와 Weibel(1981)은 물리적인 환경 내의 심리적인 따뜻함과 친숙함은 분위기를 좌우하는 주된 요소라고 하였다.

위에 언급된 연구의 결과를 통해 주거의 역할은

인간 경험의 중요한 부분이며 가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장소라는 것이 논의된다.

Smith(1994)는 현재의 집에 대한 부분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물리적, 사회적, 개인적인 3개 차원의 총 15개의 주제를 파악하였고 그 중 10개는 가정 경험의 개인적인 것으로 가정의 편안함, 자아표현, 자유 등이 가정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개념이었다.

2. 가정의 특성을 어떻게 물리적 디자인으로 표현할 것인가?

노인들의 환경행태에 관한 연구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은 노인의 개인적인 욕구와 공간의 특성사이의 조화성 여부에 달려 있으며(Kahana, 1982).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과 과거 환경간의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Lazarus, 1966)고 주장한다. 또한 노인을 위한 집단거주 시설의 물리적, 건축적 형태가 거주하는 노인들의 건강과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Brennan, 1988, Lawton, 1977, Moos & Lemke, 1985).

앞에서 정의된 가정의 개념에 나타난 특성들을 물리적 디자인으로 표현하기 위한 연구들중 가정의 프라이버시, 연속성, 자아동질성 또는 개인화의 개념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Rubinstein(1987)은 노인이 자신과 가정환경의 연결점으로 관계중심 차원(social-centered process), 개인중심 차원(person-centered process), 신체중심 차원(body-centered process)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고 하였다.

프라이버시는 관계중심의 차원으로 집단거주시설에서 중요한 특성으로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Kahana, 1982; Regnier & pynnos, 1987). Hogland(1985)는 집단 노인시설주거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감, 취약성들의 감정을 느낀다고 하였다. 노인 시설주거에서 개인의 방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방의 크기가 작으므로 또한 거주자들의 사회화를 위해 사회적 공간에서 그러한 행위들이 일어나도록 계획되고 있으나 로비, 라운지, 식당 등이 "가정"과 같은 분위기로 느

〈표 1〉 가정의 개념의 차원에 대한 연구

HAYWARD	TOGNOLI	SMITH	KAHANA	기타
물리적 구조 영역	중심성 연속성	물리적 사회적	질서와 조직 연속성	과거와의 연속성 프라이버시
공간내 케적	프라이버시	개인적	프라이버시	
자아동질성	자아-표현과 개인 동질성	개성의 표현	개성의 표현	
사회문화적 단위	사회적관계	사회화	따뜻함, 친숙함	

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가 느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의 공공적인 특성 상 그러한 조치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Howell(1976)에 의하면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다 드러나고, 방문객들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으므로 로비나 라운지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Zavotka와 Tesford(1996)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교류는 거주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들을 시설내 공공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지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의 방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Zavotka(1997^{주)}는 노인시설주거의 로비와 라운지, 식당에 대한 노인들의 지각정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들은 이 세 공간이 개인적인 공간으로 느껴지거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공간 또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로 느끼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개성이나 자아정체성에 대한 차원의 디자인 표현으로 Rubinstein(1989)의 개인중심 차원은 개인의 일생동안의 수집품, 가족의 가보, 사진 등의 개인물품들을 들고 있으며 또한 Boschetti(1995)도 소장품이 개인 자아의 표현과 역사성을 지닌 자신의 연속성의 표현으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노인들에게 가족의 사진,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시계 등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신의 자아와 가족의 역사성을 표현하도록 해 준다.

로비, 복도 안의 라운지, 식당 등은 개인 공간의 연장으로서 사회화와 장소에 대한 애착을 통해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되나 Malkin(1992)은 이러한 장소들이 종종 거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디자인되기보다 가족이나 방문객들에

게 인상적으로 보이기 위한 시도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Howell(1995)은 노인 시설주거내의 시설이용도가 낮은 것은 부적절한 디자인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만일 거주자들이 그 공간에서 개인적인 애착을 못 느끼면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개인적인 애착 또는 “장소애착”은 Boschetti(1995)에 따르면 한 공간이 노인들에게 의미를 가질 때 일어난다고 한다. Rubenstein(1989)은 주택에서 의미를 갖는 물건이나 시설특성들은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자아를 통해 일생동안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실내에 대한 개인적 애착은 그 환경이 그가 종전에 거주하던 주거환경과 사용목적이나 시각적인 자극이 유사할 경우 일어난다고 하였다. Boschetti(1995)와 Rubinstein(1989)에 의해 설명된 개인중심 차원은 공공공간에 악세사리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이전 주택과 현 거주지 사이에 변화의 정도가 크고, 로비의 개인화의 정도가 낮으며 로비에서 지내는 시간이 적은 경우, 시설에 거주 기간이 오래되는 경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등이 인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속성의 표현으로 Rubinstein(1987)은 신체중심 차원을 들고 이는 색채, 질감, 선, 형태, 의장(가구, 직물의 무늬, 색채 등)을 포함하는 개인 주변 디자인 상황을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게 될 때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새로운 거주환경은 노인들에게 즉시

주) Zavotka 등의 연구에 의하면 로비는 49%의 거주자들만이 이용하고 있으며 복도 내의 라운지는 16.6%만이 이용하고 있어서 이용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Rubinstein(1989)은 노인들에게 연속성을 제공하는 사물의 특성은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갖거나 색채, 기타 시각적인 자극 등의 익숙한 지각적 체험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장 스타일, 색채계획, 악세사리의 선택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공간의 실내 디자인은 노인들에게 시설에 대한 긍정적 적응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3. 가정과 같은 물리적 디자인에 대한 표현

노인시설 주거에서 물리적 디자인으로 가정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병원이나 너싱홈의 평지붕, 거대한 부피의 건물 덩어리 또는 상업적인 재료 사용을 배제하고 건물의 부피를 집과 같은 작은 스케일로 줄이기, 실내에도 거대한 장식보다 주택과 같은 친밀한 스케일로 처리하기와 의장이나 악세사리도 거주자의 흥미와 취향을 들어내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gnier, 1994).

1) 스케일을 줄인다: 포치, 현수(懸垂, overhang), 지붕창 등은 외부에서 보이는 건물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붕, 벽난로, 현관문은 집과 같은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3대 요소로서 그 중 첫째 요소는 지붕이다. 지붕은 경사지붕, 박공지붕이 집과 같은 친근감을 주며, 지붕창은 건물의 높이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지붕선을 윗 층의 창문턱까지 내리면 3층이 2층이나 2.5층으로 보일 수 있다(Brunmet, 1997).

또는 하나의 큰 건물을 몇 개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지역 너싱홈들은 분산화의 개념으로 조직되었다. 분산화는 큰 단지에서 좀 더 친밀하고 조정 가능한 환경으로 만든다. 복도에 자연광을 들이거나 중정 디자인은 밀집된 형태를 띄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는 그 사이 복도에 많은 양의 자연광을 들일 수 있으므로 더 이상적이다.

전면포치 역시 많은 노인들에게는 이웃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친근한 형태일 뿐 만 아니라 활동

을 지켜 볼 수 있는 효과적인 장소로 생각되고 있다. 덧붙여 포치의 스케일과 건물에 연결되어 있는 방법은 건물 전체의 부피를 길거리에서 볼 때 축소시켜 보이게 한다. 2층이나 3층의 수직적인 벽에 반하여 경사 지붕의 포치는 건물을 더 친밀하게 보이게 한다. 또한 건물의 연결 부위 등에 연결하여 설치한 외부 조경공간은 내부에서 바라 볼 수도 있고 실제로 내부 공간과 외부 정원, 포치, 패티오를 연결함으로 건물형태의 다양성과 독특한 개성을 만들어 낸다.

2) 실내에도 거대한 장식보다 주택과 같은 친밀한 스케일로 처리한다: 집과 관련된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로 벽난로와 굴뚝을 들 수 있다. 벽난로는 따뜻함을 공급하면서 같이 있다는 것의 상징과 사용자에게 시각적인 쾌감을 준다(Alexander, et al, 1977). 굴뚝은 현대의 사무실 건물이나 병원에는 없는 것으로 이 곳이 상업적이거나 제도적인 건물이 아니고 집이라는 것을 강조해 준다. 주택과 같은 스케일은 문, 창문, 장식, 가구제작 등에서도 나타낼 수 있다. 서비스 주거의 건축적인 표현은 상세 표현, 마감, 설치기구, 벽과 바닥재, 의장에 주택과 같이 인식되는 공간적인 어휘를 표현해 주어야 한다. 평지붕과 자동문은 장소, 목적과 건축적인 적용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분위기는 가정과 같은 편안함과 친숙함을 강조해 주지는 못한다.

특히 식당의 경우 이곳이 시설 내에서 가장 큰방이 됨으로 주택과 같은 작은 스케일로 계획하기가 어려우나 휠체어나 워커 이용자를 고려하더라도 주택과 같은 스케일은 일련의 알코브들을 도입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

3) 의장이나 악세사리도 거주자의 흥미와 취향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

건물의 양식이나 실내의 가구나 의장 등이 집과 같다면 미적인 면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거주지의 사물들은 거주자, 스태프, 가족들의 태도, 행태에 영향을 준다. 병원과 같은 시설은 가족간의 교류를 저해한다. 사람들 사이의 좋은 관계, 또는 과거의 추억을 회상케 하는 물품, 수

집품들은 그 모양, 질감, 외양 등이 집의 친밀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가구선택, 마감재, 바닥재, 벽마감재, 수납공간 등이 유지관리 측면에서만 선택되면 제도적 시설과 같이 보여 거주자들에게 암암리에 무기력하게 행동하도록 디자인된 환경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위의 선행 연구들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서비스 주거 거주자들이 현재의 주택에 대해 어느 정도 집과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지 선호정도를 조사하고 현재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1. 조사지역 및 시설의 개요

조사지역인 미국 텍사스 주의 주도인 어스틴(Austin)은 전국적으로도 겨울의 온난한 기후와 쾌적한 공기 등의 기후 조건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도 인구 성장이 빠르고 특히 노인인구의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어스틴 시에 서비스 주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95년경부터이나 새로운 인구의 유입과 함께 그들의 부모들도 같이 옮겨오므로 노인시설도 빨리 성장하여 대부분의 시설들이 3년 이내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현재도 여러 곳에서 새로 오픈하고 있는 중이다. 어스틴 시의 전체 인구는 1998년 7월 현재 약 23000여명이나 주변에 많은 카운티들이 연결해 있어서 어스틴 시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전체 약 100만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에 나타난 서비스 주거시설만도 약 70여 시설에 달하고 있다.

서비스 주택들은 단독으로 경영되는 경우보다는 대개 독립 생활을 할 수 있는 단독주택과 너싱홈의 병합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시설의 규모와 질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노인단지 주거형태는 지역에 따라 또는 노인의 건강과 경제력 등을 근간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서비스주택(Assisted Living Facilities)을 택한 것은 우리나라에의 적용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주거라 해도 거의 대부분의 유료 노인시설이 공동거주형으로 아파트 형태로 건축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노인들의 경우 더욱 공동생활 주택에서 거주하게 됨으로 노인들이 쉽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건물디자인에 가정과 같은 분위기 창출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종래로 인식이 안 좋은 너싱홈들은 대개 병원과 같은 분위기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기피하고 있으며 단독주택들은 집과 같은 분위기들로 되어 있으므로 공동생활 주거의 대표 시설형태인 서비스 주택을 선택하였다. 1998년 당시 미 주택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서비스 주거시설은 2만에서 3만개의 시설에 총 6백만 이상의 노인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지난 수년간 연간 15-20%의 성장으로 가장 급속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 3개의 시설들은 공통점이 많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설을 택하였으므로 일반적인 건물의 개요는 대지의 형편, 건물의 외양이나 평면 등이 다 유사하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Forum-Lincoln Heights의 특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Forum-Lincoln Heights는 Marriott Senior Living Community로서 Marriott Hotel 업계에서 노인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국적인 체인을 가진 서비스 시설주거이다. San Antonio시에 위치한 서비스 주거시설로 서비스 주택과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독립 생활자 아파트, 및 스킨드 너싱홈이 있는 시설이다.

전체 베드의 수: 독립생활자(Independence living): 150, 서비스 단독주택 거주자(Assisted living Residence): 30, 서비스 아파트주거 거주자(Assisted Living): 60, 스킨드 너싱케어: 28명으로 약 300명의 거주시설.

시설과 서비스 종류 (Facilities and Services): 이/미용실, 다목적 사용실, 식사실, 운동실, 가사관리실, 세탁실, 도서실, 외부 정원(중정), 약국, 전화실, TV 시청실, 쇼핑이나 외출시 버스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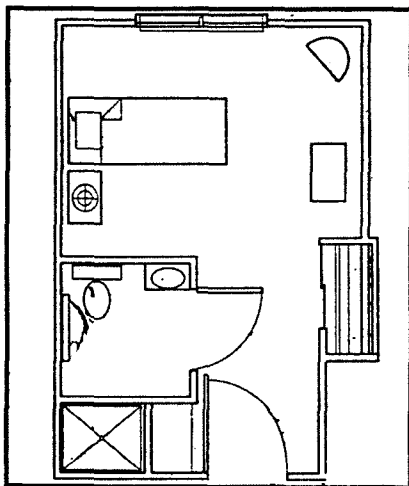
거주자 특성: 거주자의 평균 연령은 86세이며 처음 입주시의 평균 연령은 독립생활자의 경우 남자 60대, 여자 70대에 들어온다. 남녀 노인의 성비는 1 : 4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곳에 평균 거주기간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2년 정도로 보고 있다. 그 후에는 죽음 또는 가족들이 데려가는 등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또는 너싱홈 등의 더 보호적인 시설로 이동하게 된다.

건물의 물리적 형태: 중앙에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 양편을 돌아 가운데 중정을 끼고 사면으로 방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이다. 박공 지붕과 전면의 포치가 있고 중정을 통해서서는 외부로 나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양복도 형식으로 중앙 복도의 좌우로 방이 배치되어 있어서 중정이 있어도 복도는 낮에도 조명을 밝혀야 하고 다만 중정을 향해 창문이 있는 식당, 도서실, 운동실, 휴연실을 통해 중정에 나갈 수 있다. 중정의 시설물은 노대(露臺: Gazebo)가 있고 약간의 조경이 되어 있으며 노대 이외의 곳에는 대개 앉을자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시설의 경우는 맞은 편 건물로 가는 통로의 의미와 같은 곳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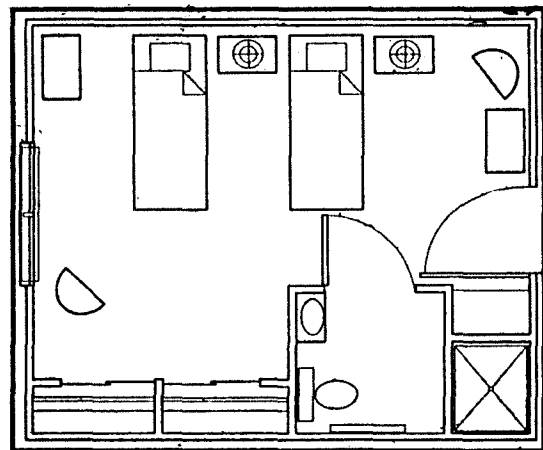
로비는 주 출입구에서 들어오면 바로 로비이나 주로 출입을 위해 계획된 것으로 거주자들이 앉아서 출입하는 사람들을 지켜볼 수는 없게 되어있다. 단지 바로 옆에 식당과 거실이 있어서 대개의 노인들이 그곳에 모여 지내고 있다.

거처하는 방의 종류는 침실(bed room)과 원룸형(efficiency)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침실의 경우는 작은 부엌과 거실이 있고 침실이 하나 또는 두 개로 되어 있다. 방은 임대료에 따라 같은 1침실이라도 크기가 다르고 시설물은 샤워실, 가열기구가 없는 부엌, 실내 온도조절기, 기본적인 가구가 비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 방의 바닥은 전체 카펫가 일반적이거나 특히 카펫 알려지가 있는 경우는 자신의 비용으로 마루나 다른 바닥재로 대체할 수 있다. 창문 처리, 개인이 조작할 수 있는 냉난방,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샤워실의 디자인은 욕조 없이 앉아서 샤워할 수 있도록 나무 벤치가 설치, 또는 자신의 휠체어에서 그냥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유사시 스텝을 부를 수 있도록 욕실 벽에 기다란 줄로 연결된 응급 콜 장치가 있다.

양복도 형식으로 4-5개의 마주보는 방마다 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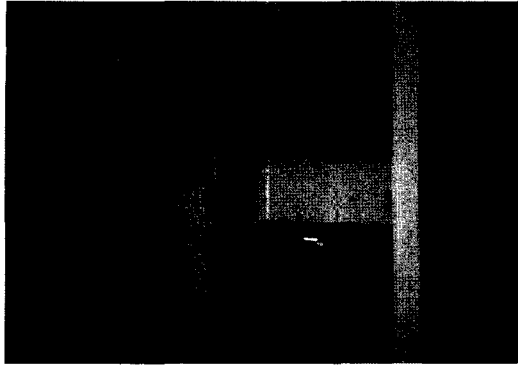


소규모 1인실(3.5m×6.1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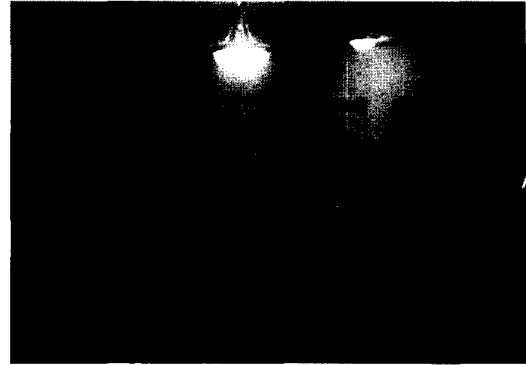


2인실(5m×6.15m)

<그림 1> Forum-Lincoln Heights의 개인방 평면도



〈사진 1〉 개인방의 부엌 부분



〈사진 2〉 개인방 앞의 라운지

면 별도의 소파와 탁자가 있는 라운지를 통해 복도로 나오게 되어 있어서 4개의 방끼리 서로 친근히 지낼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복도 벽의 색채는 노인들에게 활기를 주기 위해 하늘색 또는 분홍색, 노랑색 등의 파스텔 톤으로 페인트칠이 되어 있다

주변환경: 이곳은 샌 안토니오의 북쪽에 위치한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으며 주변에 대형 교회가 있고 건물내부에 중정이 있어서 아주 쾌적하고, 넓은 주차공간으로 길과 격리되어 있고 주변 조경이 좋은 곳이다. 건물의 창들이 넓어서 실내에서도 조망과 햇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특히 독립생활 거주자들이 많은 관계로 아주 활발한 분위기를 갖고 있으며 서비스 주거 거주자들과 독립주택 거주자, 및 너싱 홈의 거주자들은 같은 시설 내에 거주해도 철저히 구분된 공간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서 서로 마주칠 기회는 없게 되어 있다.

2. 조사 대상 및 도구

서비스 주거시설의 수는 많으나 시설의 규모나 질적 측면에서 차이가 많고 대체로 규모가 적어서 한 곳에서 많은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결국 시설의 규모와 환경이 유사한 곳으로 어스틴과 그 인근의 라운드 록, 샌 안토니오 시에서 모두 3 개의 시설을 택하여 스태프들의 협력을 받아 서비스주거의 아파트 거주자 총 인원 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표 2). 표본 수가 작은 것은 거의 전 시설에서 규범적으로 노인 보호를 위해 조사연구에 비협조적인 것과 조사대상의 연령이 많고 건강상 이유로 대부분 노인들이 활동성이 떨어져서 조사문항의 이해도나 협력성에 문제가 있었다. 응답자 수가 적지만 그들의 시설에 대한 선호를 알아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조사도구는 질문지와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질문 항목은 현재 거주시설의 18곳의 물리적인 디자인 형태에 대해서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는지 그 정도를 5점척도로 표시하게 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가정과 같은 특성의 분석 기준으로 자신의

〈표 2〉 조사대상 개요

시설명	시설위치	서비스아파트 거주자수	평균연령	응답인원
Duval Oaks Guest Home	Austin	45	83	7
Merrill Gardens	Round Rock	30	88	5
Forum-Lincoln Heights	San Antonio	60	86	11
계				23

생활과 인생전반에 관한 만족도에 관해 역시 편안함, 프라이버시, 개인화, 친숙함, 물리적인 구조, 연속성 등에 관한 총 9가지 항목에 대해 5점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거주자 프로필에 대한 일반 사항과 거주시설에서 집과 같은 분위기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의 일반 배경

조사대상자들은 연령이 71세부터 92세까지로 평균 79.5세였다. 미국의 서비스주거 시설의 전형적인 거주자의 프로필이 83세의 여자노인인 것을 비교하면 젊은 층이라고 할 수 있다. 남녀 성비는 1:3 이었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부터 대학졸업자까지 있었으나 57%가 고등학교 졸업자이었다. 평균 수입은

월 \$1,000-\$1,500이 60.5%, \$1,500-\$2,000도 49.5% 이었으며 수입의 근원은 복수응답으로 매월 정기수입이 71%, 메디케어가 14%, 개인저금이 28.5%이었으며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이 42.8%로 나타났다. 현재 시설에서의 거주 기간은 4개월에서 3년까지로 평균 17개월이었다. 또한 현재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서비스는 완전 독립 생활하는 노인이 42%인 반면 복수 응답으로 옷 입기 42%, 목욕하기 28%, 배변하기 28%, 가사관리 57%에 노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서비스 주택 거주자의 전형적인 서비스 범주인 식사, 목욕, 옷 입기, 약 복용, 배변의 5가지 중 식사하거나 약 복용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시설 내에서 상대적으로 정신, 신체적인 건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시설에 들어온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것으로 가족과 가까이 있으려는 이유가 가장 높았다. 이는 어스틴 지역에 노인 인구의 유입이 빠른 것이 전체 인구

<표 3> 물리적 디자인 특성에 대한 집과 같은 편안함의 만족 정도

순위	디자인 특성	만족도 점수	순위	생활만족도	만족도 점수
1	식 당	3.7	1	좋은 사회적 관계	3.4
2	중정/정원 자신의 방	3.5	2	자율성/조정능력	3.1
4	전체 시설내 환경 활동실	3.4	3	프라이버시 유지 자신의 개성표현 가능 활동을 조장시키는 건축 평면	3.0
6	악세사리(그림, 시계, 수집품 등)	3.3	6	시설에서 방향성 상실경험 인생 만족도	2.9
7	현관 포취 자기 방의 욕실 시설의 조경	3.2	8	내 집과 같은 느낌	2.6
10	거 실	3.1	9	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	2.5
11	시설내 마감재의 건축상세 시설의 외부 형태	3.0			
13	색채 선택 가 구 현관 로비	2.8			
16	복 도 / 도서실	2.3			
18	세탁실	2.0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실상 종래의 노인 주거지로 선호되던 플로리다의 경우 잦은 홍수와 습기로 인해 선호도가 감소되는 경향이고 기후 좋고 습기없는 이곳이 선호되고 있다는 인구 통계도 있다. 거처하는 방의 종류는 2인 1침실이 43%, 2인 2침실이 28%, 1인 1침실, 15%, 1인 원룸 15%로 나타났다. 이 시설에 들어오기 바로 전의 주택의 형태는 단독주택이 단연 많아서 57%, 콘도미니엄 거주 29%, 노인단지의 독립 단독주택에서 옮겨온 경우도 14%에 달했다.

2. 시설에서 가정과 같은 특성을 느끼는 정도

시설의 18개 장소에 대한 집과 같은 편안함의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4점으로 거의 중간 정도임이 나타났다. 실상 전체 항목을 살펴보면 1점에서 5점의 점수분포는 거의 정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각 시설의 편안함에 대해 순위별로 밝히면(표 3) 첫 번째가 식당(3.7)이고 외부 정원(3.5)과 자신의 방(3.5)이 공동 2위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은 순위별로 식당, 외부정원과 자신의 방이었고 시설 전체(3.4)에 대해서는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선호를 보이고 있다. 활동실(3.4), 그림 등의 악세사리(3.3), 전면 포취(3.2), 방의 욕실(3.2), 조경(3.2), 거실/라운지(3.1) 등이 중간보다 긍정적인 선호를 보이는 곳으로 나타났으며 건축적인 상세(3.0)나 건물의 외양(3.0)은 그저 그런 정도이고 중간보다 부정적인 느낌을 보이는 곳은 건물 내 실내 색채의 선택(2.8), 가구(2.8)나 현관 로비(2.8) 약간 부정적인 점수를 받았고 복도(2.3)나 도서실(2.3)은 더욱 낮은 선호를 보이고 있으며 세탁실(2.0)은 가장 낮게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시설에 대해 가정과 같은 특성을 느끼는데 부정적인 경향은 그들의 현 시설 입주 이전의 주택형태가 단독주택인 경우가 57%이었고 노인단지의 단독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옮겨온 경우까지(14%) 모두 71%에 달하므로 공동주택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스텝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은 3-6개월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적응을 위해 종전의 생활에 대한 약간의 포기가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되도록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할 때 시설에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으로 최소한 85세 이전에는 들어올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점수가 낮은 이유는 화려하게 보이는 건물 디자인이라도 그들의 과거 집의 특성과 많이 상이하다는 것의 반증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환경이 과거의 자신의 집과 많은 공통점이 있어서 연속성을 가질 때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Kahana, 1982, Regnier, 1994).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디자인 특성과 생활만족도 특성으로 나누어 결과분석 및 논의를 하면 아래와 같다.

1) 디자인 특성

시설의 물리적 디자인에 대한 거주자들의 선호를 5점 척도로 조사한 중에 가장 낮은 1점에 표시된 장소로는 현관의 로비(14%), 복도(14%), 세탁실(28%)로 나타나서 가장 낮은 선호 장소로 디자인상의 고려가 요청된다.

조사대상 시설의 로비는 식당과 연결하여 있으며 상대적으로 통로의 개념으로서 편히 앉아서 노인들이 오고가는 사람들을 지켜볼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으므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종전의 연구 결과들(Zavotka, 1977; Malkin 1992)과 일치한다. 노인시설의 로비나 라운지, 식당 등은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거나 가정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없다는 종래의 연구지적과 같이(Zavotka, 1977; Regnier & Pynoos, 1987), 본 연구에서도 거주자들이 비록 식당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가정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조사대상 식당의 구조가 넓고 개방적인 공간이므로 나타난 결과로 보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함으로 일어나는 프라이버시 부족의 문제로서 부분적인 간막이, 스크린, 또는 큰 식물들을 이용하거나 더 작은 공간, 더 친밀한 공간을 식당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유럽의 경우 중앙의 공동 식

당은 큰 행사시에 모이고 일반 식사는 공동 식당에서 운반하여 층별로 또는 클러스터 별로 하고 있다. 또한 아침이나 점심 등의 식사는 큰 식당보다는 작은 복도 내 라운지에서 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이의 해결을 위해 조사대상 시설 중에는 식당 공간 옆에 별도의 가족모임을 위한 방을 만들어 가족들 방문시의 식사 또는 가족행사 등에 사용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곳도 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세탁실은 단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장소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단지 세탁기, 건조기 1대 씩 만이 설치되어 있는 좁은 공간이므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되나 노인들의 공간 사용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 수효를 늘리기보다는 디자인 면에서 면적을 좀 넓게 하거나 의장을 아름답게 하는 등의 배려가 요구된다.

중정과, 전면포치의 경우 만족점수가 각각 3.5점과 3.2점으로 나타났다. 주거 공간의 공간적, 정서적 측면에서 주택의 내부부 사이의 전환공간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공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상의 차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 공간이 없이 외부로부터 곧 바로 내부로 연결되는 건물은 거주자들이나 방문객들에게 공공 건물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 가정의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 사이의 전환공간과 같은 공간(예: 포치, 선룸, 테크, 온실, 스크린으로 가려진 포치 등)이 있을 때 일상적이고 편안한, 수동적/활동적인 행위들이 이루어 질 수 있다(Brummett, 1997). 단지 아쉬운 점은 조사 대상시설들의 중정이 사면으로 막혀 있다는 것이다. 좀더 넓은 부지 위에 위치하여 한 곳이 터어 있어서 중정에서 더 크고 넓은 장소를 바라볼 수 있고 나무 사이로 좀 더 소규모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보호되는 공간으로 수목이나 담장으로 둘러 쌓인 공간, 커다란 테크, 좌우 건물로 둘러 쌓인 공간 등 목적이 있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담소, 피크닉, 바베큐, 정원 일을 할 수 있는 행위공간으로 개인적으로 흥미있는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위를 지켜 볼 수 있는 장소도 제공되면 더 사회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색채선택 및 가구(28) 등도 낮은 선호도를 보이

고 있는데 한 시설의 경우 실내 복도의 벽을 전체 분홍색으로 칠하여 남자 거주자들은 어색함을 느낄 수 있겠다. 노인들의 경우 진한 색보다는 연한 색을 선호하며 원색보다 중간색을 선호하므로 성별과 함께 이러한 배려도 필요하겠다.

도서실(23)도 역시 낮은 점수인데 스텝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책읽기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개는 비어 있다고 하는데 면적이 좀 더 크고 조명을 더 편안하게 하고 소음이나 시선을 피할 수 있도록 계획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2) 생활 만족도

노인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역시 평균 2.9로 약간 부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 중 사회성(Good Social Relationship)과 자율성/조정능력(Sense of Control)은 각각 3.4, 3.1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로 나타났다. 특히 프라이버시(Keep Privacy)의 측면에서 점수(3.0)가 중간인 점은 조사대상 노인들이 2인실을 사용하는 비율이 71%로써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에 방해되는 점들을 고려할 때 공유된 아파트는 거주자의 사적 경험과 친밀한 행위 및 자신의 집의 소유 및 개인화하는 능력에 심각한 장애를 주게 된다. 따라서 되도록 단독 거주 아파트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부나 친구, 친척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2인 2침실의 비율을 적게 하고 모든 거주자들은 자신의 재정적인 자원에 관계없이 단일 가구로 살 권리와 능력을 가져야 한다.

시설에서 복도 내 라운지는 일반적으로 개인 방의 바로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4~5 가구의 거주자들이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상당히 프라이버시가 있는 듯하나 연구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거주자들이 바라는 정도의 프라이버시는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Zavotka, 1997). 왜냐하면 이 장소는 거주자의 방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어서 그만큼 프라이버시에 대한 요구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들 공간의 디자인은 또한 프라이버시 수준이 높게 요구되는데 그 이유는 때로 TV를 보거나 소규

모 그룹의 대화의 장소로 거주자들의 거실과 같이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이 공간이 비록 거실과 같이 보일지라도 거주자들이 프라이버시의 부족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이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간의 특성이 불분명하게 거주자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거주자들이 이전의 주택에서는 그와 같은 반(半) 사회적 공간에 대한 경험이 없으므로 그 공간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이에 대한 온전한 해결 방법은 이 공간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 여유 공간을 좀더 그들의 방 안에서 프라이버시를 더 완벽히 지킬 수 있도록 공간을 크게 하는데 배분 할 수도 있다. 이는 또한 노인들이 시설에서 개조를 원하는 부분에서 방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을 원하는 비율(57%)이 높은 것으로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만일 복도 내 라운지를 그대로 둘 경우는 그 공간의 이용과 사회화가 더 촉진되도록 특정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되어 거주자들에게 인지시키는 것도 중요하겠하다.

낮 시간에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역시 자신의 방이었으며(86%) 그 외의 장소로는 식당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경우가 57%에 이른다. 그 다음이 거실로 28.5%이고 날씨가 좋을 경우는 외부 정원에서 보내는 경우도 29%에 이른다. Zavotka와 Tesford (1996)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교류는 거주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들을 시설내 공공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지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의 방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터뷰 결과 현재의 시설 중 아무 곳이나 개조 할 수 있다면 어디를 개조하기 원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 중 63%의 사람들이 자신의 방의 규모를 더 크게 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여 자신의 방에서의 활동에 방의 크기와 프라이버시의 부족으로 인한 활동상의 장애를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들이 방문했을 때 서로 식사도 하고 가족끼리 지낼 수 있도록 시설 내에 가족실을 비치해 놓았는데 이 방을 더 넓게 고치고 싶다는 의견(32%)과 침실의 색채를 다른 색으로 페인팅하고 싶다는 의견(14%)도 있었다. 거주자들의 요구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것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아파트의 개조 가능부분을 고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신의 욕구에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면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며 그러할 때 스텝에 대한 의존도가 더 증대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과거 경험으로의 연속성과 자신의 자아동질성을 위해 자신의 고유 가구에 대한 소유여부에 대해 단 한 명의 응답자만 제외하고 전체 응답자들이 최소한 2점에서 7점의 개인 소유가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에 개인소유물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여 가구, 의장, 사진, 수집품, 이러한 용품들로 인해 과거를 회상할 수 있으므로 방이 활기를 띄며 독특한 장식이나 가구 등으로 방마다 상당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뷰 결과에서도 자신의 아파트 내부나 방의 바로 외부에 식별성을 높이고 개인의 자아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장식이나 장식이 있는가에 대해 68%의 거주자들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자신의 아파트 출입문에 이름표를 부착하거나, 시설의 획일적인 출입문 대신 자신이 주문 제작한 문으로 식별성을 높인 경우, 문에 그림이나 화환 걸기 등으로 개성을 표현하고 있었다.

시설에서 방향감 상실(Feel Lost in Setting)의 경험에 2.9점은 이중부정으로서 약간 익숙함을 느끼는 의미로 해석되나 점수가 크게 높지 못하므로 문제가 있다. 또한 집과 같이 느끼는가의 질문에 2.6의 점수는 부정적인 선호를 보이고 있으며 이곳에서의 삶이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2.5)과 함께 거의 비관적인 선호를 보이고 있다. 더욱 이들 역시 삶의 질은 건강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견상 좋은 환경이라도 생의 마지막 주거가 될지 모른다는 절망감과 생활의 변화가 없는 소모적인 삶이라는 것의 선호를 낮추는 원인이 된다. 이에 덧붙여 자신의 시설에서 방향성이 분명치 않아서 혼돈을 일으킨 경우의 여부에 대한 인터뷰에서 14%만 제외하고는 모두 어느 정도의 혼란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사람들이 방향각을 느끼도록 시설내의 표식이 분명히 안 되어 있다는 것이 42%, 장소를 기억 할 수

있는 눈길을 끄는 장식이나 설치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약 15%, 조명이 충분히 밝지 못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4.8%로 나타났다. 시설 내에서 각 방의 위치가 다 잘 인지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감을 가지며 방향성/길찾기를 쉽게 함으로 자존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성이 없는 좌우 대칭의 유사한 복도 및 실내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찾는데 지장을 준다. 조사 대상 시설의 복도 역시 길을 잃은 경우에도 빙 돌아 제 자리에 오게 하려는 의도로 순환형으로 되어있어서 복도가 길고 좌우 양면에 방문이 닫혀있는 경우는 어둡게 느껴지기도 하는 등 식별성이 분명치 않다.

위의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이들의 선호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는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이 본 연구결과나 또한 현장의 스텝들을 통해 분명해 졌다. 가족들이 편안히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은 카페와 같은 공간, 친밀감을 주는 앉을 자리, 온실이 있는 일광욕실, 피크닉 공간, 둘러싸여 아늑한 감을 주는 포치 등과 가족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하여 집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의 혼란감을 가족과의 끊임없는 관계로 완화시킬 수 있다(같이 식사하기, 같이 개인적인 세탁하기, 독서, 그룹행동에 자발적 참여하기, 음악듣기, 피크닉 런치 등).

가족이나 친지의 방문 시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28.5%의 사람들이 불편감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같이 있기에 좁은 방의 공간 28.5%, 부엌이 없는 점 14.2%, 시설의 설비가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 28.5%로 나타났다. 독립생활자 주택의 경우는 완전한 부엌이 설치되어 있으나 서비스 주거의 경우에는 냉장고와 싱크대만 제공될 뿐 조리용 가열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서비스 주거 거주자들의 독립성을 위해 독립된 부엌이 있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일반 서비스 주거 디자인 책에는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 모든 서비스 주거의 경우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 이유로 스텝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실제로 평균 연령이 83세이므로 더 이상 조리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사실상 식당에서 제

공되는 식사의 질이 좋으므로 자신이 직접 조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한 노인들의 경우 친지나 가족들이 방문하였을 때나 시설 내의 동료 방문했을 때 친밀한 분위기에서 간단한 식사를 원하고 있고 유용한 작은 부엌은 실제적인 가치와 함께 상징적인 의미에서 거주자의 능력, 자율성, 위엄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Brummett, 1997)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시설 계획시 부엌의 가열대 또는 가열 기구의 설치를 선택사항으로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노인시설 주거의 공통적인 주제는 그 곳에서 장소적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다. 개인의 독자적인 생활을 격려하기보다 서비스가 더 많이 제공되는 시설에 들어가면 거주자들이 자신의 집에서의 오랜 동안의 독립적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찾아야 되므로 더욱 장소애의 적응이 힘들어 진다 (Pastalan, 1990). 이러한 변화는 단지 집을 떠난다는 것 뿐 아니라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자신의 소유물도 버려야 한다는 데 더 심각성이 있다.

노인들에게 좀더 집과 같은 편안한 느낌의 시설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분위기가 나지 않도록 건물의 스케일, 집과 같은 마감재료의 선택, 실내 디자인의 상세한 마감처리, 가정과 같은 친밀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가구와 악세사리의 선택, 및 방의 용적 등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개인 방의 크기 역시 되도록 1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프라이버시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은 자신들의 방으로 나타났으나, 방의 크기와 프라이버시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방에서의 활동상의 장애를 많이 느끼고 있음이 나타났으므로 친밀한 관계의 유지와 심리적인 안정성을 통해 더욱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방의 규모를 더 크게 할 것과 욕구의 변화에 부응하여 개조 할 수 있도록 개조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는 것이 요청된다.

생활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시설 내에서 노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평면상의 계획에 가족을 위한 공간을 설치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또한 개인 방의 면적과도 관련이 되고 실제 시설 내에서 가족들이 같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노인들에게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디자인과 공간의 성격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이 요청된다. 외부의 경치를 내다보면서 현 위치가 어디쯤인지 식별할 수 있게 하거나 외부와 내부의 재료를 달리하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표물, 분명한 경계, 천장높이와 조명의 변화, 목적지까지 동선이 다 보이게 하는 등 디자인상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복도 내의 라운지들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은 공간 성격이 불분명한 것이 원인이므로 그 공간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 사용상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어떠한 디자인 요소들이 좀더 친숙한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노인들의 과거의 경험이나 사회의 변화, 선호의 변화 등에 따른 다각도에서 생활 접근적 연구가 필요하겠다. 물리적 디자인이나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선택이 올바르지 않으면 시설에 대해 소원하게 느끼게 되며 옳은 선택을 한 경우는 공간 효율을 높이고 정신기능을 조장하고 우정형성에 기여하며 긍정적인 상호 작용의 기회를 주어 결과적으로 노인들의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같은 단지에 있어도 독립 생활자들은 활기가 있어 보이는 반면 서비스 주택의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연령과 건강상에 취약성으로 삶에 대한 기대나 즐거움에 약간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질적인 삶을 위해서는 시설의 물리적 디자인으로 심리적 편안함과 상대적인 자율성을 오래 보전시킬 수 있는 연구들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환경에 대한 의사결정의 참여 기회가 많을수록 조절감이 증가하고 따라서 신체적, 심리적인 건강이 증진됨으로 거주자와 환경과의 연관성에 대한 더 많은 연구로 최대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기능적

이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과 환경적 특성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Brennan, P. et. al.(1988), Preferences of Older Adults and Experts for Physical and Architectural Features of Group Living Facilities, *The Gerontologist*, Vol. 28, No. 1, 1988 pp 84-90
- 2) Boschetti, A. Margaret(1995), Attachment to Personal Possessions: An Interpretive Study of the Older Person's Experience, *J. of Interior Design* 21(1), 1-12
- 3) Boschetti, A. Margaret(1990), Reflections On Home: Implications For Housing Design For Elderly Persons, *Housing and Society* Vol.17, No.3,
- 4) Brummett, William(1997), *The Essence Of Home. Design Solutions for Assisted Living Housing*,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 5) Carp, F.(1976), User Evaluation of Housing for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Vol. 16, No. 2, 1976 pp102-111
- 6) Goodman, J. Raymond & Smith, G. Douglas (1997), *Retirement Facilities. Planning, Design, and Marketing*, Whitney Library of Design, Watson-Guptill Pub. N.Y.
- 7) Harrigan, E. Jogn et al.(1998), *Senior Residences, Designing Retirement Communities for the Future*,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 8) Hogland, J. David(1985), *Housing For The Elderly: Privacy And Independence in Environments For The Aging*, Van Nostrand Reinhold Co. New York
- 9) Lawton, M. Powell et. al.(1982), *Aging and the Environment. Theoretical Approaches*, Springer Pub. Co. New York
- 10) Lawrence R. J.(1987), What Makes A house A Home?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19, No. 2, March 1987 154-168

- 11) Moos, H. Rudolph & Lemke, Sonne(1996), Evaluating Residential Facilities, Sage Pub. Inc. California.
- 12) Nasar, J., & Farokhpay, M.(1985), Assessment of Activity Priorities and Design Preferences of Elderly Residents in Public Housing: A Case Study,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Vol. 25, No.3, 1985 pp 251-257
- 13) Pastalan, A. Leon(1990), Housing Design for the Elderly, Strategies for Senior Housing. Underwriting Evaluating Senior Housing Developments, Mortgage Bankers Association of America, Probus Pub. Co. Chicago, Illinois
- 14) Regnier, Victor(1994), Assisted Living Housing For The Elderly. Design Innovations from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 15) Regnier, Victor et. al(1995), Assisted Living for the Aged and Frail. Innovations in Design, Management and Financing,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 16) Regnier, V., & Gelwicks, L. E.(1981), Preferred Supportive Services for Middle to Higher Income Retirement housing, The Gerontologist, Vol. 21, No.1, 1981
- 17) Smith, S. G.(1994), The Essential Qualities of A Home, J. of Environmental Psychology, vol. 14 31-46
- 18) Wandersman, A., & Moos R. H.(1981), Assessing and Evaluating Residential Environments: A Sheltered Living Environments Example,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13, No. 4 July 1981 pp 481-508
- 19) Zavotka, L. Suzan et. al(1997), The Design of Shared Social Spaces in Assisted Living Residences for Older Adults, J. of Interior Design 23(2), 2-16